

시대·세대 아우르는 민주주의… 새 봄 꿈꾼다

시민난장 등 모두 함께 열어가는 축제 구현

추모·계승·연대… 2030 미래세대 관심도 ↑

제45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중>

1980년 5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피맺힌 함성이 2025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오월정신 헌법전문 미수룩, 지속된 왜곡과 편향, 진상규명 미흡 등 80년 5월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올해 5월은 오월정신이 전국화, 세계화되는 개화기를 맞이했다.

5·18민주화운동이 잊혀진 역사로 남지 않고 오월의 숭고한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발걸음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

△새로운 세상을 여는 민주주의 대축제 2025년 5월은 지난 2024년 12월 한국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는 민주주의 대축제'로 열린다.

오월 광주를 찾는 시민들이 해방광주가 꿈꿨던 대동세상을 특별한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추모·계승·연대로 미래를 열어가는 시민축제를 구현함과 동시에 80년 5월의 강렬한 체험을 공유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본격적인 오월 행사는 17일 시민난장부

터 그 시작을 알린다.

이날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진행되는 시민난장은 오월 연극제, 민주주의 대합창, 시민 참여 거리부스, 민중미술 전시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민주결사대', '소년의 기억' 등 미션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이 80년 5월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오월 행사의 꽃인 전야제는 '환영의 대축제', '민주주의 대축제', '빛의 대축제' 등 총 3부로 구성됐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금남로에서 새로운 세계를 전망하는 민주주의 대축제로 진행된다.

또 23~26일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는 '민주수호범시민광기대회'가 재현, 세대 간 의견을 조율하고 공동의 의견을 수렴해 12·3 내란 이후의 새로운 민주주의 가치를 확립하는 자리도 만들어진다.

△모두가 함께 기억하는 5·18

올해 5월 행사는 오월의 빛으로 다시 살아나는 민주주의, 세계 민주주의의 심장으로서 자리 잡은 광주, '5·18정신 헌법전문수룩'을 포함한 개헌으로 민주주의의 공고 등을 추진 목표로 전국 곳곳에서 관련 사업들이 일제히 펼쳐진다.

시민이 5·18기념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시민 참여형 공모사업에는 전국에서 45주년 행사 기초와 방향에 기반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11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다양한 사업들을 접수했다.

민주인권 음악교육 실시와 5·18역사기행, 5·18기념행사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기록한 전시도 열린다.

또 광주를 비롯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5·18기념행사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특별기획사업으로 5·18정신에 대한 철학적 고찰과 함께 사회대전환에 대한 학술 발표하고 토론하는 '사회대전환, 나침반으로서 5·18'이 전남대 일원에서 개최한다.

△미래세대로 오월정신 계승 '12·3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 민주주

의를 지키기 위한 광장을 2030 청년이 주도적으로 이끈 가운데 올해 오월에 대한 미래세대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들이 보여준 5·18에 대한 응원은 80년 5월이 과거의 고통을 넘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오월정신 계승 뮤지컬 등 여러 사업이 영상, 공연, 기행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펼쳐진다.

청년 PM(Project manager) 사업은 '미래세대로의 전승'에 부합하는 청년 분야 사업으로 직접 청년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해 청년의 시선으로 5·18 행사를 진

행한다.

올해는 임채민 PM이 '청년, 오월을 이어적이다'를 통해 웹툰, 전시, 음악, 연극으로 청년들의 오월을 표현한다.

또 민주·인권·평화·나눔·공동체 등의 오월정신을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재해석하는 '2025 5·18청소년문화제'도 개최한다.

5·18행사위 관계자는 "올해 5·18기념 행사는 민·관을 아우르는 광주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민주주의 대축제, 청소년과 2030 청년 세대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기억되는 광주를 구현하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u1404@

SOCIETY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날씨

예보 05:31 달출 19:16
예전 19:27 달진 04:50



광주	☀️	12~25
목포	☀️	12~22
여수	☀️	13~19
순천	☀️	9~23
구례	☀️	8~25
광주	☀️	10~23
해남	☀️	11~23
함평	☀️	12~20
고흥	☀️	8~22
진도	☀️	11~21

목포	미물(고)	02:05 / 13:57
	셀물(저)	07:20 / 19:16
여수	미물(고)	08:42 / 21:17
	셀물(저)	02:48 / 14:38

광주 속도위반 1위 '동구 학강초 스쿨존'

총 1만7394건 적발…전남은 '순천 승주초 스쿨존'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과속 단속카메라에 가장 많이 적발된 구간은 동구 천변우로 학강초 병설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경찰청이 분석한 지난해 고정식 무인카메라 과속 단속 통계에 따르면 동구 천변우로 학강초 병설유치원 스쿨존에서 총 1만7394건이 적발됐다.

이어 서구 빛고을대로 계수교차로 입구(동림나들목→금호동) 1만4658건, 광산구 첨단월봉로 성모남해유치원 스쿨존 1만1156건, 남구 독립로 백운초 병설유치원 스쿨존 1만802건, 광산구 첨단중앙로 모모유치원 스쿨존 9441건 등 순이었다. 적발된 상위 5개 구간 중 4곳이 스쿨존이었다.

전남지역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최다 과속 적발 구간은 순천시 승주읍 승주초 스쿨존(총 1만5040건) 이었고, 화

순군 이양면 매정리 593~63(1만3759건), 고흥군 과역면 도천리 105~1과역교차로 구간 중점(1만3710건), 순천서면 동산초 스쿨존(1만2537건), 5위는 고흥봉래면 봉래초 스쿨존(9922건) 등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상 스쿨존으로 분류된 초등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 인근은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과속카메라에 감지된 속도가 규정 속도에서 시속 20km까지 초과할 경우 과태료 4만원, 20km 초과~40km 이하는 7만원, 40km 초과~60km 이하는 10만원, 60km 초과 시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과속하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항상 규정 속도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여순사건 민간 희생자 유족들, 정부 손배소 승소

희생자 1억원 등 판결…"상당 기간 사회적 편견 대상"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해 불법으로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70여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 일심 재판장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 A씨 등 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

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1948년 여순사건 과정에서 군인·경찰들의 불법적인 민간인 학살에 가족을 잃었다.

희생자들 중 1명은 목포형무소에 갇혀 있다가 사살됐고, 1명은 동생의 행방을 추궁하는 경찰을 피해 다른 가족의 집에 피신해 있었다는 이유로 순천 한 야산에서 적법 절차 없이 사살됐다.

또 다른 2명은 여순사건 기간에 행방불명돼 여순사건위원회로부터 희생자로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국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로 희생자의 경우 1억원, 그 배우자 5000만원, 부모·자녀 1000만원, 형제·자매 500만원 등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정부 소속 경찰들의 불법행위로 단기간에 4명의 가족을 잃게 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한빛원전 5호기 터빈건물 공기압축기 화재

영광 한빛원전 5호기 터빈건물 공기압축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1일 한빛원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38분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5호

기 터빈건물 지하 1층에 설치된 공기압축기에서 불이 났다.

한빛원자력본부 관계자가 소화기로 초기 진화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터빈 건물은 원전 외부에 있는 발전시설로, 한빛 5호기는 현재 계획 예방 정비 중이다.

공기압축기는 비안전관련설비로 각종 공기구동밸브 등에 압축공기를 공급하고 있다.

영광=정규발 기자 ykjpg98@gwangnam.co.kr

“5·18 현장 탐방…‘광주 공동체’ 정신 느꼈다”

동구 오월 기억여행 행사…전일빌딩·주남마을 등 방문

초등학생 등 27명 참가자 “희생자·민주주의 역사 기억”

“전일빌딩245, 민주화운동기록관, 주남마을 등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장소에서 광주 공동체 정신을 느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광주 동구가 5·18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기획한 '동구의 오월 기억여행' 탐방 프로그램에는 광주, 나주 등에서 온 초등학생, 학부모, 어르신 등 27명이 참여했다.

하해남 광주여성회 5월역사해설사는 전일빌딩245 옥상 전일마루에서 전일빌딩245 총탄 자국 설명을 시작으로 동구

의 오월 기억여행을 진행했다.

하해남 해설사는 “전일빌딩245에는 외벽 68개, 실내 177개의 총탄 자국이 있다. 이는 헬기 사격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 준다”며 “5·18광주민주화운동 핵심 장소인 전남도청, 민주광장은 민주주의, 평화, 평등을 간직하고 있다. 최근에는 박근혜·윤석열 대통령의 탄핵·퇴진을 촉구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자들은 전일빌딩 10층 5·18기념공간 전시실로 이동해 헬기 사격 탄흔, 탄흔의 과학적 분석, 계엄군의 발포 타임라인, 전일빌딩245 헬기 사격 주제 영상

를 확인했다.

이후 5·18민주화운동기록관 6층으로 자리를 옮겨 1980년 당시 윤공희 대주교 집무실을 복원한 공간을 둘러봤다.

하 해설사는 창문 한 칸에 붙여진 '진실의 눈'이라는 문구를 가리키며 “윤공희 대주교가 5월19일 6층 집무실 창밖으로 내려다본 골목에서 계엄군에게 폭행당한 젊은이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도 두려워서 실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참여자들은 1980년 5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관광버스를 타고 주남마을로 발길을 옮겨 위령비 앞에서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헌화한 뒤 주남마을 버스정류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광주 동구는 지난 10일 5·18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동구의 오월 기억여행'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하 해설사는 “주남마을 버스정류장은 5월23일 발생한 주남마을 인근 버스 총격 사건의 미니버스 모형을 참고해 만들어졌다”며 “계엄군의 버스 총격으로 희생당한 민간인을 추모하는 ‘기억이 나는 이 축제’는 주남마을의 옛 지명인 지한면 녹두밭 웃머리를 기억하자는 뜻으로 ‘기

역각라 녹두밭 웃머리’의 초성인 ‘기’와 ‘노’를 상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비경험 세대가 늘고 있다”며 “5·18이 비극적이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정신을 이어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구인문학당에 도착한 참여자들은 장

세레나 광주여성회 대표의 제안으로 메모지에 ‘주남마을 군부대 주둔, 무서움과 떨림을 느꼈다’, ‘518버스를 보며 광주시민이 5·18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등 소감을 작성한 뒤 발표했다. 이후 광주공동체 정신이 담긴 주먹밥을 먹으며 탐방 프로그램 일정은 마무리됐다.

김화자씨(63·여·동구 산수동)는 “80년 5월 당시 민주화운동에 같이 참여하지 못해 5월만 되면 가슴이 아프다”며 “동구의 오월 기억여행을 통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민주주의 역사를 배울 수 있어 뜻깊었다. 많은 사람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소회했다.

배차영씨(42·북구 중흥동)는 “전일빌딩245, 민주화운동기록관, 주남마을 등을 보며 민주주의가 쉽게 얻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느꼈다”며 “태어나기 전이라 크게 와 닿지 않았지만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공부해야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